

※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하며,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검찰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 팩스 02-3480-2704

## 보도자료

2024. 8. 28.(수)

자료문의 : 대검 형사선임연구관실

전화번호 : 02-3480-3425

주책임자 : 형사선임연구관

### 제목

## '24년 7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 대검찰청은 '24년 7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5건을 『국민을 섬기는 검찰』 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하였음(※ 상세내용 별첨)

① 아동과의 단순 성매매로 송치된 사건에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단순 성매매가 아닐 수 있다는 단서를 포착함에 따라, 성매수 상대방이 아닌 성폭력 피해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동에 대한 검사 직접 심층면담 및 대검 진술분석 등 적극적 직접 수사를 통해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실체를 밝혀 피고인을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충실히 한 사례 [안산지청]

② 전세사기로 검찰에 순차 분리 송치된 사건에서, 압수수색, 금융계좌 분석 등 철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여, 전세사기 일당에게 25억원을 불법 대출한 금융기관 지점장과 금융기관을 알선하고 7,000만원을 수수한 법무사 등 2명을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고, 전세사기 범행에 이용된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임차 의뢰인들에게 소개한 중개사 등 5명을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인지하여 기소하는 등 전세사기 범행 배후의 구조적 실체를 규명하여 엄단한 사례 [천안지청]

③ '04년 영월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 다른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장기 미제가 되었으나, '14년 경찰 재수사가 개시되어 불구속으로 송치받은 이후, 범행현장 족적 및 혈흔 분석, 관련자 압수수색 실시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알리바이를 꾸며낸 범행의 전모를 규명한 후 피고인을 직접 구속하여 기소한 사례 [영월지청]

④ 불구속 송치된 음주운전 사건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4회에 이르는 피고인이 직전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에 의문을 품고 해당 기록을 대출받아 수십개의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불기소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여, 그가 음주운전 후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의도적인 추가음주를 한 후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함으로써 처벌을 모면하였으나, 그 직후 다시 운전한 사실을 밝혀내어 피고인을 직접 구속하고 추가 음주운전 범행까지 기소하여 엄단한 사례 [원주지청]

⑤ 법원의 수사의뢰를 받아 직접수사를 통해 수개월에 걸쳐 유령법인 설립, 계좌내역 조작, 소송수행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28개의 피해회사를 상대로 전국 법원에서 전자소송으로 99억원 상당의 허위 지급명령을 받아내고 피해회사들로부터 예금 16억 6,000만원을 추심받아 편취한 조직적 소송사기 일당 6명 전원을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한 사례 [춘천지검]

■ 첨부 : 우수 수사사례 선정 내역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1	안산지청 형사제2부	<p><b>【성폭력사범 엄단, 피해자보호·지원】</b> 아동과의 단순 성매매로 송치된 사건에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단순 성매매가 아닐 수 있다는 단서를 포착함에 따라, 성매수 상대방이 아닌 성폭력 피해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동에 대한 검사 직접 심층면담 및 대검 진술분석 등 적극적 직접 수사를 통해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실체를 밝혀 피고인을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충실히 한 사례</p>
	이세희(35)	<p><b>사안 개요</b></p> <p>○ '23. 8. 야간에 공원에 혼자 있는 피해아동에게 접근하여 호감을 산 후 용돈을 주겠다고 하며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매개·성희롱등)]</p>
	유희경(변4)	<p><b>선정 이유</b></p> <p>○ 피해 아동이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자 성폭행범의 주장에 따라 아동에 대한 '성매매' 혐의로 송치된 사안에서,</p> <p>-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단순 성매매가 아닐 수 있다는 단서를 포착한 후 아동을 피해자로서 배려한 심층면담, 대검 진술 분석 등 조사를 진행하여 아동으로부터 성폭력 피해 진술을 이끌어 내 성폭행 범행의 전모를 규명</p> <p>○ 이를 통해 성폭력범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매개·성희롱등)죄 등 혐의로 입건한 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직접 구속</p> <p>○ 또한 피해자가 범죄 충격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관기관과 범죄피해자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위한 보호·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는 등 충실한 피해자 보호·지원 실시</p>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2	천안지청 형사제1부	<p><b>【직접수사, 민생침해 사범 엄단】 전세사기로 검찰에 순차 분리 송치된 사건에서, 압수수색, 금융계좌 분석 등 철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여, 전세사기 일당에게 25억원을 불법 대출한 금융기관 지점장과 금융기관을 알선하고 7,000만원을 수수한 법무사 등 2명을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고, 전세사기 범행에 이용된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임차 의뢰인들에게 소개한 중개사 등 5명을 공인 중개사법위반으로 인지하여 기소하는 등 전세사기 범행 배후의 구조적 실체를 규명하여 엄단한 사례</b></p>
	최형원(34)	<p><b>사안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인 A, B, C, D : 전세사기 일당) ① '20. 2 천안시 소재 건물에 관하여 실제보다 8억여원이 적은 전세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 14부를 위조하여 X금융기관으로부터 건물 인수자금으로 27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 [특경법위반(사기)], ② '19. 12. ~ '21. 3. 무자본으로 인수한 위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과다 대출받은 사실을 숨긴 채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임차인 28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15억원을 편취 [사기]</li> <li>○ (피고인 E : 새마을금고 지점장) ① '20. 11. ~ '21. 1. A가 매수할 부동산의 가액을 수억원 부풀려 Y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알고도 3회에 걸쳐 합계 약 25억원을 불법 대출 [특경법위반(배임)], ② '20. 3. A의 부탁으로 A가 매매를 중개한 건물 매수인 명의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고, 거래내역을 임의로 누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li> <li>○ (피고인 F : 법무사) '20. 3. A에게 건물 매수자금 대출기관으로 Z금융사를 소개하고 7,000만원을 수수 [특경법위반(알선수재)]</li> <li>○ (피고인 G 외 6 : 공인중개사) '20. 2~11. 임차 의뢰인들에게 A 소유 건물의 시가를 부풀리거나 공제증서를 통해 임차인 1인당 1억원의 보증금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 [공인중개사법위반]</li> </ul>
	이종혁(39)	<p><b>선정 이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과 상시적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무자본으로 건물을 인수한 뒤 임차인 28명으로부터 15억원을 편취한 전세사기범을 엄단함</li> <li>○ 송치 후 계좌추적 등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전세사기 일당에게 불법대출을 해준 새마을금고 지점장, 금품을 대가로 대출 기관을 알선한 법무사를 직접 구속하고, 임대차 중개 시 임차물의 시가를 부풀려 임대차계약을 유도한 공인중개사 5명을 인지하여 전세사기 일당과 함께 기소함으로써, 전세사기 범행 배후의 구조적·조직적 대출사기의 전모를 규명하고 민생침해사범에 엄정 대응</li> </ul>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3	영월지청	<p><b>[직접수사, 정성처리]</b> '04년 영월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 다른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장기 미제가 되었으나, '14년 경찰 재수사가 개시되어 불구속으로 송치받은 이후, 범행현장 족적 및 혈흔 분석, 관련자 압수수색 실시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알리바이를 꾸며낸 범행의 전모를 규명한 후, 피고인을 직접 구속하여 기소한 사례</p> <p><b>사안 개요</b></p> <p>○ '04. 8. 강원 영월군 소재 피해자 근무지인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불상의 예기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가 두부손상 및 경부, 복부 자상으로 사망케 하여 살해 <b>[살인]</b></p> <p><b>선정 이유</b></p> <p>○ '04년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며 알리바이를 주장하였고 혐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부족하여 장기 미제로 남겨졌으나, '14년 경찰에서 재수사 후 피고인을 불구속 송치한 사건에서,</p> <p>- 범행 현장에서 채취된 족적 감정 및 혈흔 분석을 통한 범인 특정 및 사건 재구성, 관련자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 <b>전면적인 보완수사</b>를 통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사건 당시 <b>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었음을 밝혀내고,</b></p> <p>- 피고인이 당시 교제하던 여성이 피해자와 사귀다는 사실을 알고 사전 계획 하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알리바이를 꾸며낸 사실을 확인하는 등 <b>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여 피고인을 직접 구속 기소함으로써, 사건 발생 약 20년 만에 살인 사건의 진범을 규명</b></p>
	김현우(36)	
	홍광범(48)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4	원주지청 형사제2부	<p><b>【상습음주운전 및 사범방해행위 엄정대응】</b> 불구속 송치된 음주운전 사건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4회에 이르는 피고인이 직전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에 의문을 품고 해당 기록을 대출받아 수십개의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불기소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여, 그가 음주운전 후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의도적인 추가음주를 한 후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함으로써 처벌을 모면하였으나, 그 직후 다시 운전한 사실을 밝혀내어 피고인을 직접 구속하고 추가 음주운전 범행까지 기소하여 엄단한 사례</p> <p><b>사안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 송치 범죄사실) '24. 4.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 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li> <li>○ (검찰 인지 범죄사실) '20. 3. 약 14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 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li> </ul>
	류주태(37)	<p><b>선정 이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 음주운전 1건으로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4회에 이르는 피고인이 4년 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에 의문을 품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 기록의 모든 증거관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함</li> </ul>
	양정훈(변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은 무혐의 사건 기록에 편철된 CCTV 영상 파일 수십개를 분석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후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하기 전 차량 안에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을 곤란하게 하고,</li> <li>- 경찰서에서 귀가조치 하자 화물차를 주차해 둔 곳으로 돌아가 만취상태로 또다시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을 밝혀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은 송치사건에 추가로 규명한 범행을 병합해 지능적 사범방해 행위로 형사처벌을 회피한 피고인을 직접 구속함으로써 엄단하고 피고인의 재범을 차단하였음</li> </ul>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5	춘천지검 형사제2부	<p><b>【조직적 소송사기 시범 엄단】</b> 법원의 수사의뢰를 받아 직접수사를 통해 수개월에 걸쳐 유령법인 설립, 계좌내역 조작, 소송수행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28개의 피해회사를 상대로 전국 법원에서 전자소송으로 99억원 상당의 허위 지급명령을 받아내고 피해회사들부터 예금 16억 6,000만 원을 추심받아 편취한 조직적 소송사기 일당 6명 전원을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한 사례</p> <p><b>사안 개요</b></p> <p>○ '23. 5.~11. 피해회사와 동일한 상호의 유령법인 10개를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이용해 마치 피해법인에 물품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고 이를 근거자료로 하여 '물품대금을 미리 지급했음에도 물품을 받지 못했으니, 대금을 반환해 달라'며 전자소송을 통해 28개 피해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지급명령(채권금액 합계 99억원 상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추심할 금액 합계 66억원 상당)을 받아 16억 6,000만 원을 추심 [사기, 사기 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금융실명법위반]</p>
	홍승현(35)	<p><b>선정 이유</b></p> <p>○ 법원에서 수사의뢰한 소송사기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관련 법리검토, 전국 21개 법원 압수수색 실시, 계좌내역 분석 등 직접수사를 통해,</p> <p>- 피고인들이 각각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범행을 통해 수개월에 걸쳐 전국 법원에서 28개 피해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액 합계 99억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받고 이에 근거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실제 16억 6,000만원 상당을 추심받은 사실을 밝혀냄</p>
	김광락(43)	<p>○ 피고인들은 일부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그 실체를 쉽게 파악할 수 없도록 2명만을 소송당사자로 내세우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하였으나, 검찰은 압수수색, 계좌내역 분석, 전자소송 접속 IP 확인 등을 통해 다른 공범의 존재를 파악하고, 공범 검거 사실을 알고 잠적한 상선 2명을 수개월간 끈질기게 추적하여 일당 전원을 구속 기소하였음</p> <p>○ 1개 검사실 및 수사과 수사관들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관련 법리 검토, 압수수색 실시, 계좌내역 분석 등 유기적 협력으로 직접수사하여 전자소송 제도의 편의성을 이용한 조직적 사기 범행 범행의 총책, 중간관리자, 배후 공범 등 전원을 엄단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p>